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26〉 한국토지공사 수완지구 조각공원

아파트 단지에 예술의 향기가 솔솔 피어납니다

김기범 작 '생명-자연으로부터'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 수완지구에 조성한 조각공원은 지역민들의 문화 감성을 키워주는 소중한 공간이다. 작품은 전덕제 작 '물방울 오케스트라'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아트갤러리 전망대와 상징탑 '생동'(김성식 작)

김숙빈 작 '공존의 쉼터'

정기웅 작 '유년의 꿈'

임무를 완수한 로보트 태권 브이가 푸른 하늘 아래 편한 자세로 누워 있다. 그 옆엔 깡통 로봇이 턱을 괴고 엎드려 무언가 이야기를 건네는 듯 하다.

광주 수완 지구에 난데없이 나타난 로보트 태권브이와 깡통로봇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김숙빈씨가 화강암으로 조각한 '공존의 쉼터'다. 작품 제목처럼 사람들이 실제로 태권브이 다리 등에 앉아 쉴 수 있어 인기 만점이다.

조금 위쪽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 작품들이 자리잡고 있고, 거대한 장벽을 뚫고 달려나가는 역동적인 남자의 모습도 눈에 들어온다.

다양한 조각 작품이 들어선 곳은 광주 수완지구 인라인 경기장 뒤쪽 중앙공원에 자리잡은 조각 공원. 수완지구 건설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본부장 한우석)가 조성한 조각 공원은 시민들에게 문화향기를 전하는 공간이다.

토공은 문화 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기관으로 꼽힌다. 토공은 해남 등 전국의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다니며 '사랑이 꽃피는 콘서트'를 열고 있으며 미술에 소질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피카소의 꿈' 프로젝트도 진행중이다.

광주전남 지역본부 역시 수완지구에 국제 규격을 갖춘 인라인 경기장을 만든 데 이어 지역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키워줄 조각 공원을 조성했다.

토공 8억원 들여 조성…도시민 위한 '문화 쉼터'

▲고근호 씨 작품 등 11점 설치

현재 조각 공원에 설치된 작품은 모두 11개다. 지난 4월 전국 작가들이 참여한 '광주 수완 지구 야외 조각작품 현상 공모'를 통해 접수된 74편 가운데 선정된 작품으로 모두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참여 작가들은 작품이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주거 지역에 설치된다는 점을 감안,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작품 보다는 어린이 등을 소재로 삼아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나는 작품들을 제작했다.

전덕제씨는 기타와 작은 북 등을 치는 어린이들을 재미있게 묘사한 '물방울 오케스트라'를, 채민수씨는 숲속을 산책하며 느껴지는 생각들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한 '내 마음속 나무'를 설치했다. 또 고근호씨는 화강암을 주소재로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숨바꼭질'을 선보였으며, 김기범씨는 자연친화적 생태환경을 담은 '생명-자연으로부터'를 설치했다.

그밖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표현한 배동호 작 '공존', 정혜정 작 '무등 사랑', 김도훈 작 '새로운 희망', 정기웅 작 '유년의 꿈'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조각공원에 들어선 작품들은 마음껏 만질 수 있고, 일부 작품들의 경우 걸터 앉을 수도 있어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수완지구는 오는 2010년까지 2만 4천700세대 약 7만 4천여명이 들어서는 광주 최대의 주거지역으로 현재 우미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상태. 아직 많은 세대가 입주한 것은 아니지만 주말에는 인근 신창·운남지구 주민들도 방문하는 등 벌써부터 문화 명소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트 갤러리 전망대도 설치

다양한 조각 작품들을 관람하며 나무로 된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독특한 외관의 아트 갤러리 전망대(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이용)를 만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날개를 뻗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전망대 5층에 올라가면 수완지구는 물론, 인근 신창지구 등 광주 지역의 조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건물 지하에는 440㎡(약 133평) 규모의 갤러리 시설도 갖췄다. 연말께 수완지구 조성이 마무리 되면 광산구청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전망대 앞에는 조각가 김성식씨가 제작한 수완지구 준공 기념 조형물인 '생동'이 자리잡고 있다.

조각공원 입구에는 색다른 또 하나의 조형물이 눈에 띈다. 박길영씨가 설계한 야관 경관 조형물인 'LED 횃불 조형물'이다. 5억원의 예산을 투입, 반투명 유리와 금속으로 제작한 횃불 조형물은 광주를 상징하는 '빛'을 조형물과 접목한 작품으로 환하게 불이 밝혀지는 야간에 색다른 풍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21일 조각공원을 찾은 김재성씨 부부는 "입주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가까운 곳에 조각공원과 아트갤러리 전망대도 있어 좋다"며 "로보트 태권브이를 형상화한 작품이 참 재미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후원: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